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결합방식은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

김 양 환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결합방식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가지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진보성과 우월성을 옳게 인식하고 그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결합방식이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새롭게 밝혀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결합방식은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됩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4권 260페이지)

일반적으로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밝히는 문제는 해당 사회제도가 인민대중의 자주적 본성, 자주적요구와 집단주의적요구를 얼마나 구현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밝히는 문제이다. 사람의 자주적요구와 집단주의적요구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결합방식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이 문제를 옳게 밝혀야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옳게 파악할수 있다. 그것은 사회에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있으며 그것의 결합방식에 의하여 사회제도의 진보성이 규정되기때문이다.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결합방식이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것은 첫째로, 그것이 사람의 자주적본성, 자주적요구를 얼마나 구현하고있는가를 가르는 기준으로 되기때문이다.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결합방식은 사회제도와 떼수 없이 련관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제도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사회적질서의 공고한 체계이다.

지난 시기 원시사회를 제외하고 노예사회가 봉건사회로, 봉건사회가 자본주의사회로 넘어간것은 이러나저러나 사회의 진보성에서는 일련의 전진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노예사회에서는 노예들이 말하는 도구로, 짐승으로 취급된 인신적예속에서 해매였으며 봉건사회에서는 농노, 농민들이 인신적예속에서는 벗어났지만 신분적예속에 얽매여 자주적 본성과 자주적요구가 심히 억제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반봉건투쟁에 의하여 신분적예속에서 벗어난 농노, 농민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또다시 자본의 울가미에 얽매여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할수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착취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본성, 자주적요구를 실현할수 없었으며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할수 없었다.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비로소 인민대중은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할수 있었으며 따라서 자기의 자주적본성과 자주적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본성, 자주적요구가 착취사회에서 억제되게 된것은 착취사회에서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불일치됨으로써 소수 착취계급과 광범한 인민대중사이에 계급적대립관계가 이루어졌기때문이다.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적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낳고 사람들사이에 대립관계를 가져온다. 오직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개인의 리익과 집단의 리익이 일치됨으로써 진정한 단결과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게 되

였다.

사람은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어 집단을 이루고사는 존재일뿐아니라 개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속에서 살며 활동하는 존재이므로 사람의 리익에는 집단의 리익과 함께 개인의 리익이 있게 되며 사회생활에서는 필연적으로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결합시켜나갈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그런데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결합시켜나갈데 대한 문제는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것은 사회제도가 사람들의 요구와 리익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사회적질서로서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결합시키는 방식을 규제하는 작용을 하기때문이다. 어떤 사회제도가 서는가에 따라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대립될수 있고 일치될수 있다.

바로 착취사회에서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결합시키는 방식이 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위주로 하는 방식이었으므로 그것이 대립관계를 낳게 되었으며 따라서 사회의 진보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결합시키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것으로 하여 그것이 일치성을 보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진보적인 사회제도로 될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결합시키는것이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는 근거가 있다.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결합방식이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것은 둘째로, 그것이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집단주의적본성, 집단주의적요구를 어느 정도로 구현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재는 척도로 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집단주의적본성, 집단주의적요구를 구현하고있다.

집단주의는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속에서만 생존하고 발전할수 있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적협력에 의해서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으며 자기의 리익을 실현할수 있다. 사람이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살아가자면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다같이 실현해나가야 한다. 집단의 리익은 사회적집단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사회성원들의 공동의 리익이다. 개인의 리익은 사회적집단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가지는 리익이며 사회적집단을 위하여 이바지하는것으로 하여 집단으로부터 응당 보장받을수 있는 리익이다.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결합시키는 사회제도가 진보적인것으로 되자면 그것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제도 다시말하여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집단주의적본성, 집단주의적요구를 구현한 사회제도로 되어야 한다.

집단주의의 본질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운명을 같이하는데 있다. 집단주의의 기본요구는 집단의 리익을 우위에 놓고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일치시키며 집단의 리익속에서 개인의 리익을 실현해나가는것이다.

집단주의에 배치되는것은 개인의 리익 그자체가 아니라 집단의 리익을 희생시키면서 개인의 리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이다.

집단과 개인의 호상관계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집단이며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과의 관계에서 보다 중요한것은 집단의 리익이다.

집단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개인의 리익을 보장하는데 저촉되고 개인의 리익을 해치

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은 잘못이다. 개인의 리익은 집단의 리익을 옹호하는 조건에서만 더 잘 실현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결합방식이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집단주의적본성, 집단주의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결합하고있는 사회주의이기때문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집단의 리익이 철저히 옹호되는 기초우에서 매 개인의 리익도 존중되고 보장되며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일심단결되어있다.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인 단결이며 자기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정을 가슴깊이 간직한 전사들사이의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한 일심단결이다.

우리모두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집단의 리익을 위주로 하면서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옹게 결합시킨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명실공히 온 사회가 단결과 협력의 관계로 활짝 꽃피나는 사회주의강성국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높이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다.